

인도 뭄바이의 도시설계 싱크탱크, UDRI

조시은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Urban Design Research Institute(UDRI)는 뭄바이 관련 도시 연구와 프로젝트를 30년 넘게 해 온 비영리기관이다. UDRI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다양한 층위의 공간들이 얽혀 있는 뭄바이와 같은 복잡한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답을 모색해 나가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UDRI의 주요 역할과 기능, 프로젝트들을 알아보고 국내 도시연구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관 소개

UDRI는 1984년 뭄바이에 설립되었다. UDRI의 비전은 뭄바이 광역지역(Mumbai Metropolitan Region)이 균형 발전과 효율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포용적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강의·전시·포럼과 출판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UDRI는 특히 일반 대중과 전문가 그룹 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매개하여 참여적 계획(participatory planning)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깊게 관여한다.

UDRI 조직 설립 초기에는 뭄바이 역사지구의 건축문화유산을 조사하고 건축물대장을 대조하여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향후 포트 구역 관리계획(Fort Management Plan)으로 발전하는 등 연구 대상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수행의 내용과 활동도 다양해졌다.

주요 역할 및 기능

프로젝트 및 뭄바이 스튜디오(Mumbai Studio) 운영

UDRI는 도시계획 수립 참여나 역사문화 보존, 디지털 정보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매핑(mapping)과 문헌자료 또는 지역조사를 바탕으로 프로포절을 제안하거나 출판물을 발간하여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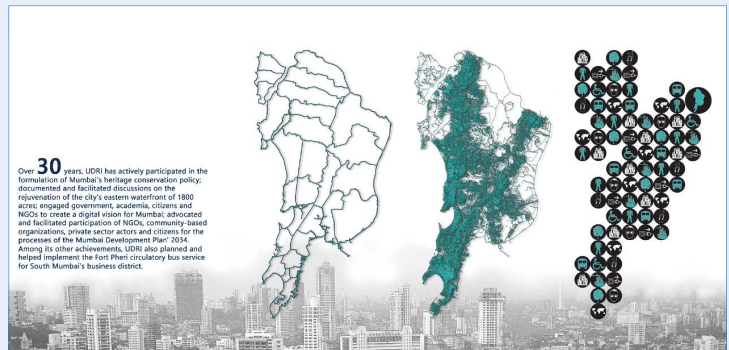
“UDRI는 특히 일반 대중과 전문가 그룹 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매개하여 참여적 계획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깊게 관여한다.”

생성한다. UDRI에서 진행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는 뭄바이 스튜디오(Mumbai Studio)와 연계되어 있는데, 뭄바이 스튜디오는 인도의 대학생과 젊은 전문가 그룹이 프로젝트 단위로 협력하여 도시설계, 계획, 도시정책 현안들에 대한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UDRI는 총 15회 이상의 스튜디오를 운영하였으며, 1,500명 이상의 인도 국내외 건축 및 계획학과 학생들이 뭄바이 스튜디오에 참가하였다(UDRI, 2017). UDRI는 미시간 대학(Alfred Taubman College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University of Michigan), 하버드 대학(Graduate School of Design, Harvard University), MIT(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MIT), 컬럼비아 대학(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Preservation, Columbia University) 등 다수의 외국 유수 대학과 협력하여 뭄바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뭄바이 스튜디오와 연계하여 UDRI는 2008년부터 3년간 젊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연구지원 프로그램(research fellowship programme)을 운영하였다.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주제는 슬럼가 이주민 사례 연구, 뭄바이 근린단위 보행환경 개선방안 연구, 그리고 종교시설 건축물 매핑을 통한 장소성 발굴 등 매우 다양하다.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결과는 UDRI가 주최한 워크숍을 통해 발표되기도 하였으며, UDRI의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되었다.

출판 및 홍보(Publications)

UDRI는 1993년부터 주택, 도시 관리, 역사문화 보존 등의 주제와 관련한 단행본·보고서·매뉴얼과 콘퍼런스 자료들을 출판하고 있다. 특히 매년 발간되는 <Mumbai Reader>는 특정한 주제에 국한되기보다는 뭄바이처럼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복잡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경험되는지를 담고 있다. <Mumbai Reader>에 투고하는 주체 역시 공공정책 입안자를 비롯해 시민 단체·전문가그룹·학계 등 다양하며, 원고의 내용은 뭄바이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에서부터 여성의 관점에서 경험되는 도시 등과 같은 인문학적



UDRI 프로젝트 소개

출처: <http://www.udri.org/projects/>

“뭄바이 개발계획 2034 검토 과정에서 UDRI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뭄바이 토지이용 정보를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공식 요청하여 정보공개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답론까지 아우른다.* 이렇듯 UDRI는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알리는 것을 강조하며, 도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각적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외에도 UDRI는 인도 현대 건축의 거장인 찰스 코레아(Charles Correa)의 작업을 수집하여 발간물을 제작한 바 있다. 특히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지어지지 않았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출판하는 등 인도의 현대 건축 유산을 보존하고 알리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포럼(Public Forum) 운영

UDRI가 강조하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은 공공포럼(Public Forum) 운영이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도 재확인된다. UDRI는 대중교통 문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방안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강의와 콘퍼런스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총 250회에 걸쳐 공공포럼을 운영하였으며, 누적 참가자가 1만 명에 이른다(UDRI, 2017). 또한 UDRI는 최근 뭄바이의 공공 서비스, 인프라 건설 등과 같은 주요 현안들에 대해 SNS를 비롯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도시문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자료센터(Resource Center) 운영

2003년 이래 운영 중인 도시자료센터는 단행본·보고서·지도·신문기사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공공을 대상으로 개방되어 있다. UDRI는 도시설계 및 계획과 건축뿐 아니라 역사·예술·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자료도 구축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게 자료들에 접근하여 도시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돕고 있다. 또한 UDRI는 건축가 찰스 코레아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Charles Correa Archives)를 구축하여 코레아의 설계 작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외에도 뭄바이의 GIS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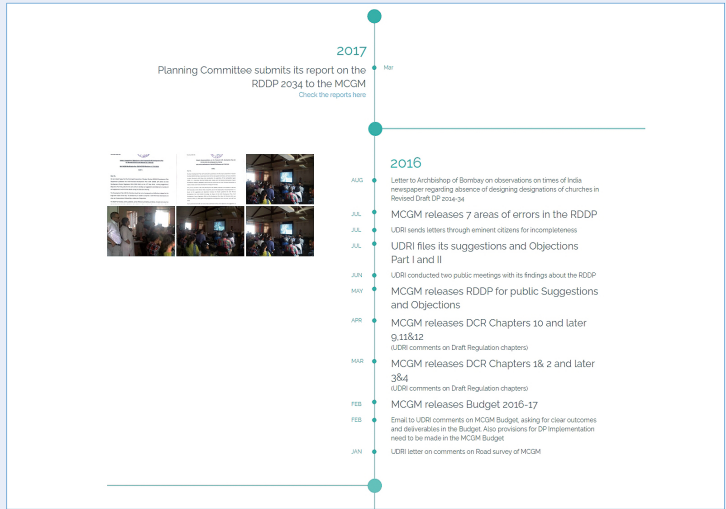
UDRI의 대표적 프로젝트는 도시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한 것으로, 뭄바이 개발계획(Mumbai Development Plan) 수립과정 참여와 포트 구역 관리계획(Fort Management Plan) 수립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역사문화 보존 관련 프로젝트와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도 UDRI의 주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 수립 지원 프로젝트

‘뭄바이 개발계획 2034’는 201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개발계획 내용의 심각한 오류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해 재검토되었으며, UDRI는 개발계획 수정 과정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 UDRI Mumbai Reader. <http://www.udri.org/publication/mumbai-reader-18-2/>

** UDRI Monographs. <http://www.udri.org/publication/buildings-as-ideas/>



UDRI의 뭄바이 개발계획 참여과정 타임라인 일부

출처: <http://www.udri.org/development-timeline/>

뭄바이 개발계획 2034 검토 과정에서 UDRI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뭄바이 토지이용 정보를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공식 요청하여 정보 공개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UDRI는 토지이용지도(Existing Land Use: ELU)를 검토하여 지도상의 오류 3,000여 개를 찾아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슬럼 지역이 토지이용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발견하였다. UDRI는 개발계획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개발계획 수립을 도모하였고, 궁극적으로 뭄바이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UDRI는 토지이용 검증 가이드(Existing Land Use verification guide)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NGO·시민사회·주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그룹을 형성하고, 2011년에는 뭄바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스튜디오를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등 뭄바이 개발계획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UDRI가 주관한 회의를 통해 24개 주민협의체와 250여 개 NGO 단체 그리고 2,500명 이상의 시민이 개발계획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UDRI, 2017),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부(Municipal Corporation of Greater Mumbai: MCGM)가 개발계획의 내용뿐 아니라 예산계획도 수정하는 데 반영되었다. 2018년에 시행된 뭄바이 개발계획 2034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 3,700ha에 달하는 토지 개발, 그리고 친환경구역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The Economic Times(2018).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services/property/-/cstruction/mumbai-gets-new-development-plan-heres-all-you-need-to-know/videoshow/63916681.cms>



'Horniman Circle' 조성 당시 모습(상)

우물 복원 모습(하)

출처: http://www.udri.org/projects/restoration-pyau-horniman-circle/#iLightbox/gallery_image_1/4

이와 더불어 UDRI는 뭍바이의 역사지구라 할 수 있는 포트 구역의 관리계획(Fort Management Plan)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UDRI가 1990년대 시작하였던 해당 구역의 건축물 유산 연구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하였다. UDRI는 문화유산 관리, 공개 공간, 교통, 폐기물 관리 등의 주요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행자 도로 조성, 주차 관리, 행상인 관련 가이드라인, 폐기물 처리 방안, 사이니지(signage)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UDRI는 포트 구역의 보행환경, 도로 개선, 발라드 단지 관리계획(Ballard Estate Urban Management Plan) 등과 같이 별도의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역사문화 보존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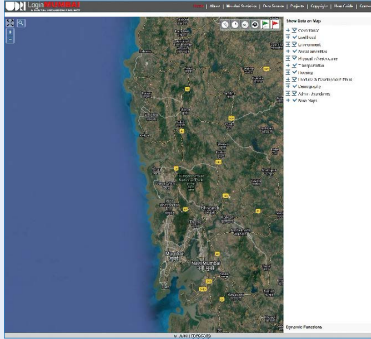
UDRI는 뭍바이의 건축문화유산 보존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 공개 공간, 유적을 발굴하여 보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빅토리아 및 아르 데코 양식과 인도의 건축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위치한 'Oval Maidan'의 유네스코 등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UDRI는 'Esplanade Mansion'과 'Horniman Circle' 등의 보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Mahatma Jyotiba Phule' 시장의 보존 및 재개발 연구도 수행하였다. 'Esplanade Mansion'과 'Horniman Circle'은 모두 포트 구역 내 위치한 구조물로, 특히 'Esplanade Mansion'은 영국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가 뭍바이로 운송되어 지어진 인도 최초의 프리패브(prefab) 건축물이다. 1867년에서 1869년에 걸쳐 지어진 'Esplanade Mansion'은 1960년대까지 호텔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시설이 낡아 이용도가 떨어졌는데, UDRI는 해당 건축물의 복원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Horniman Circle'은 포트 구역 내 위치한 18세기 유적으로, 과거에 행인 또는 가축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만든 우물이었다. 2015년 UDRI는 'Kalaghoda Association'의 커미션을 통해 벤치를 조성하고 1층의 구조물을 지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원하였다.

디지털 정보 구축 프로젝트

UDRI는 정부·학계·시민단체·NGO 등과 협력하여 웹 기반 GIS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뭍바이 광역을 위한 디지털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UDRI는 인도 대도시 내 광대역 인터넷 보급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포드재단(Ford Foundation)의 지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방안을 뭍바이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UDRI의 활동들을 통해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정부는 디지털 연결망 구축을 주택 정책 사안 중 하나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UDRI는 "인터넷 보급의 확산을 통해 일반 대중이 도시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미래에 대해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UDRI는 'LoginMumbai'를 통해 도시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교통, 주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oginMumbai' 인터페이스

출처: <http://www.loginmumbai.org/map.html>

나가며

मुंबाई는 대도시로서의 다양성과 개발 잠재력을 내포할 뿐 아니라 인도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식민 시대의 유산과 결합되어 다양한 층위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도시이다. 그리고 도시 빈곤의 문제가 깊이 침투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UDRI는 도시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UDRI가 진행하는 주요 프로젝트들의 특성들을 보면 참여적 계획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UDRI의 활동이 더욱 의미를 지니는 점은 공공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 구축을 추구하고, 이를 저소득층 커뮤니티와 같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주체들과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사실이다. UDRI가 매년 발간하는 <Mumbai Reader>의 목차에서 드러나듯이 도시는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사람의 공간이며, 또 변모해 가는 장소이다. 그렇기에 UDRI는 मुंबाई 시민사회나 지역 기관뿐 아니라 국외 기관들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에 대해 끊임없이 재해석(re-imagine)하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듯하다. 이러한 UDRI의 접근방식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들의 다양성뿐 아니라 도시를 연구하는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s://whc.unesco.org/en/list/1480/>

참고문헌

- 1 Urban Design Research Institute[UDRI]. (2017). Projects & Programs. Bombay Studio Resource Centre Public Forum Publications.
- 2 The Economic Times. (2018). Mumbai gets new development plan: Here's all you need to know. 4월 25일 기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services/property/-construction/mumbai-gets-new-development-plan-heres-all-you-need-to-know/videoshow/63916681.cms>
- 3 UDRI 홈페이지. <http://www.udri.org/>
- 4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홈페이지. <https://whc.unesco.org/>